



초고령사회 일본의 보험상품개발 동향

정인영 연구원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인구고령화 및 평균수명연장에 대응하여 가입연령 확대 및 장수연금 출시를 통해 신규 수요 창출을 모색하고 있음. 메이지야스다생명(明治安田生命)은 업계 최초로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을 출시하였고, 일본생명, 제일생명 등은 오래 생존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토티연금상품을 출시함

-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7%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수가 65~74세 전기 고령자보다 많은 중(重)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6년에 33.3%, 2065년 38.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¹⁾
 - 평균수명은 2015년 기준, 남자 80.8세, 여자 87.0세에서 2065년에는 남자 85.0세, 여자 91.4세에 도달할 전망이다
 - 총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100세 이상 인구는 2015년 약 6만 명에서 2065년 5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보험회사들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보험상품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로 각 개인이 노년기에 의료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장수리스크가 커지고, 이에 대한 고령층의 보장 니즈가 커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함
 - 메이지야스다생명(明治安田生命)은 2017년 12월 일본 보험업계 최초로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을 출시하였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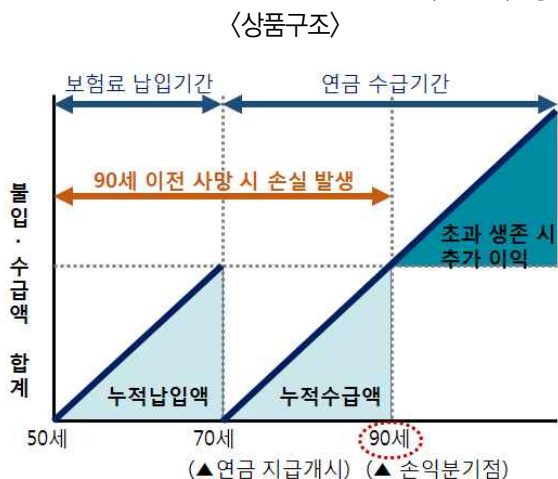
1)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2017. 4),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2) 입원 1회당 10만 엔, 수술 1회당 5만 엔을 지급하고, 특약을 추가하면 공적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선진의료(Advanced Medical Care)비용도 2,000만 엔까지 보상함(Mainichi(2018. 1. 8), "Japanese insurance companies shifting to 'longevity' plans as demographics change")

- Aflac은 2013년 8월 종신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을 80세에서 85세로 연장하였으며, 제일생명보험(第一生命保險)의 자회사인 네오퍼스트생명(Neo First Life)과 스미토모생명보험(住友生命保險)의 자회사인 메디케어생명(Medicare Life) 등도 가입연령을 85세까지 연장하였음

■ 특히, 조기 사망한 계약자의 보험료 일부를 생존한 계약자의 연금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오래 생존할 수록 혜택이 커지는 톤틴연금(Tontine Annuity) 상품을 잇달아 출시함

- 톤틴연금이란 17세기 이탈리아의 로렌조 톤티(Lorenzo de Tonti)가 고안한 연금으로,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이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생존한 사람이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
- 일본생명이 2016년 4월 톤틴연금상품인 “그랑 에이지(グランエイジ)”를 출시한 이후 제일생명, 간포생명, 태양생명 등이 잇따라 판매를 시작하였음³⁾
 - 50세 남성이 가입기간 20년으로 매월 5만 엔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70세부터 매년 60만 엔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납입보험료와 연금수령 총액이 동일해지는 손익분기 연령은 연금수령 18~20년차이며,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152.5~171.0%를 수령할 수 있음 **kiri**

〈그림 1〉 장수연금의 상품 구조



※50세에 톤틴연금(トンチン年金, 종신행) 가입 시

〈주요보험회사의 상품 비교〉

구분	일본생명	제일생명	태양생명
상품명	그랑 에이지	장수이야기	100세 시대 연금
가입연령	50~87세	50~80세	50~85세
개시연령	60~90세	60~90세	60~90세
월보험료	50,790엔	40,800엔	45,309엔
연금수령액	600,000엔	608,000엔	600,000엔
손익분기점	90세	89세	88세
100세 생존 시 연금 수령액/ 납입 보험료	152.5%	163.0%	171.0%

자료: 毎日新聞(2017. 6. 23); マネーポストWEB(2017. 10. 20), “トンチン保険 反道徳的との批判あっても各社参入する理由”

3) 毎日新聞(2017. 6. 23), “トンチン年金 - 契約増 長生きリスクに備え”, 子に負担かけたくない